

# 시카고 컵스 71년만에 WS 1승 “우승만큼 좋아”



1945년 10월 3일 열린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월드시리즈 1차전 모습.

## 클리블랜드 5-1 꺾고 1승1패...2만5천951일만에 승리



시카고 컵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71년 만에 승리를 따냈다.

컵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 4승제) 2차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방문 경기에서 5-1로 승리했다.

컵스의 마지막 월드시리즈 경기 승리는 1945년 10월 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6차전이며, 이날 승리는 무려 2만5천 951일 만이다.

당시 컵스는 6차전 승리로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갔지만, 최종전에서 패배하며 우승을 놓쳤다.

컵스의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은 1908년이며, 올해 10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전날 1차전을 0-6으로 허무하게 내준 컵스는 경기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하며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1회초 1사 후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중견수 앞 안타로 출루했고, 앤서니 리즈가 우익수 쪽 2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3회초에는 2사 후 리즈의 볼넷과 벤 조브리스트의 안타로 1, 2루 기회를 잡았고, 카일 슈와버의 안타로 1점을 더했다.

기세가 오른 컵스는 5회초 1사 1루에서 조브리스트의 3루타로 1점, 슈와버의 안타로 1점, 에디슨 러셀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더해 5-0으로 달아났다.

마운드에서는 제이키 아리에타가 6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며 클리블랜드 타선을 공공 무였다.

6회말 1사 후 제이슨 컵니에게 2루타로 첫 안타를 내준 아리에타는 프란시스코 린도어를 내야 땅볼로 처리해 2사 3루로 상황을 바꿨다.

아리에타 마이크 나폴리 타석에서 폭투로 1점을 내줬고, 이게 클리블랜드의 이날 경기 유일한 득점이었다.

후반기 부진을 겪으며 3선발로 밀린 아리에타는 이날 5%이닝 2피안타 3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슈와버가 2안타 2타점, 조브리스트가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프로그레시브에서 1승씩 나눠 가진 양 팀은 29일부터 리글리 필드로 자리를 옮겨 월드시리즈 3, 4, 5차전을 치른다.

컵스는 에이스 카일 헨드릭스를, 클리블랜드는 조시 톨린을 3차전 선발로 각각 예고했다. /연합뉴스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미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월드시리즈(WS, 7전 4승제) 2차전에서 승리한 컵스의 아롤디스 차프먼(왼쪽)과 윌슨 콘트라라사가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운영팀장서 감독으로

### 넥센 장정석 사령탑 선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27일 제4대 감독으로 장정석(43)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으로 총액 8억원이다.

덕수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장 감독은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현역 생활을 시작했다.

현대에서 2001년까지 뛴 장정석은 2002년 KIA 타이거즈로 팀을 옮겼고, 2004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이후 현대에서 프런트로 새 야구인생을 시작한 장 감독은 2008년 히어로즈로 바뀐 뒤에도 구단에 남아 있었고, 올해는 운영팀장으로 현장에서 호흡하며 팀 성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출근 프런트로 일한 장 감독은 현장 지도자 경험이 전혀 없다.

장 감독은 “구단은 선수를 위하고, 선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구단 철학을 구현하고 싶다”면서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 새로운 시도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 않는 선수가 중심인 야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정석 선임감독 취임식은 31일 오전 11시 30분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이며, 취임식 이전까지 코치진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 SK 트레이 힐만 감독 선임

### 휴스턴 벤치 코치 경력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트레이 힐만(5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스 벤치 코치를 제 6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SK와 힐만 선임 감독은 2년간 계약금 40만달러, 연봉 60만달러(총액 160만달러)의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SK는 로이스터 롯데 자이언츠 감독(2008~2010년)에 이어 KBO리그 사상 두 번째로, SK 구단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영입했다.

힐만 감독은 “SK의 새 감독이 돼 영광스럽고 매우 흥분된다”며 “코칭 스태프 및 선수들과 열심히 훈련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스스로 알아서 뛰는 호랑이”



## 김기태호, 2017 시즌 모드

### 31일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 손영민·김주형 등 33명

### 안치홍·김선빈은 국내 잔류

김기태 감독의 세 번째 구상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면서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았다. 김기태 감독은 최하위 후보라는 평가를 뒤로하고 취임 후 두 번째 시즌에서 고향팀의 ‘가을잔치’를 이끌었다. 이제 김 감독의 눈은 5위를 넘어 더 높은 고지로 향하고 있다. 더 큰 무대를 향한 시작점은 오는 3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하는 마무리 캠프다.

KIA는 27일 올 시즌 전천후 활약을 해준 김주형(31)을 최고참으로 한 마무리 캠프 선수단을 발표했다. 코칭스태프 12명과 손영민 등 투수 12명, 김주형 등 야수 17명, 이흥구를 포함한 포수 4명 등 총 33명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눈에 띈다. 올 시즌 중반 복귀해 몸을 만들어왔

던 사이드업 손영민을 비롯한 좌완 손동욱, 사이드업 임기영, 우완 김중훈 그리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소화한 외야수 이준호 등이 ‘예비역’으로 캠프를 치른다.

신인 투수들의 보호령에 따라서 지난 1년 2군 캠프에서 훈련을 했던 투수 정동현과 김현준은 처음 본진에서 캠프를 치른다. 김석환·박정우(이상 외야수), 이정훈(포수), 최승주(내야수) 등 ‘아기호랑이’도 프로에서의 첫 캠프를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마운드의 ‘기대주’ 한승혁·홍건희·김윤동 등은 자리 선점을 위해 다시 몸을 푼다. ‘안방 마님’

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백용환이 무릎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이흥구와 한승택이 주전 자리를 놓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강렬한 시즌을 보낸 노수광의 ‘뚝타자’ 도전기도 시작된다.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얻은 이들도 있다. 처음 구상과 달리 최종 선수단 명단에 변화가 있었다.

애초 내년 시즌의 키를 쥐고 있는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도 캠프에 참가해 훈련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은 허리와 발목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이 차분하게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한울·김호령도 잔류조로 재편성되면서 신진급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지난 2년의 시간, 선수들의 변화를 본 김기태 감독은 이번 캠프가 기대된다. 스스로 움직이는 선수들을 만드는 게 목표다.

김기태 감독은 “얼마 전에 이인행이 내외야에 1루 글러브까지 준비를 하고 와서 훈련을 하더라.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윤완주도 외야에서 훈련을 해보고 싶어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선수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수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플레이를 해서 감독이 한가해지면 좋겠다(웃음). 선수들이 움직이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킨 구당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내달 29일까지 계속된다. 2017시즌 신인 선수들은 11월 1일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한다.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참가 선수 명단  
▲투수(12명) : 손영민 김중훈 손동욱 박기철 홍건희 한승택 김윤동 임기영 김현준 박상욱 정동현 임기준 ▲포수(4명) : 이흥구 한승택 신병수 이정훈(신인) ▲내야수(9명) : 김주형 김성민 정상교 이인행 박효일 최원준 김규성 류승현 최승주(신인) ▲외야수(8명) : 윤정우 노수광 이준호 오준혁 이진영 임한용 김석환(신인) 박정우(신인)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광주서 내일 개막

###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장

국내 암벽등반가들의 축제 ‘제27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경기장에서 열린다.

(사)대한산악협회 광주광역시협회(회장 임승진)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내로라하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머들이 대거 참여한다.

남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 4개 중별로 나눠 치러지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경기력향상비가 주어진다.

대회는 15m 높이의 인공암벽 코스를 사전 공개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눈에 보고 오르는 온사이트 리딩(On-sight Leading) 방식의 난이도 경기로 치러진다. 홀드를 이용해 선수들의 오른손을 어렵게 설계한 경기벽을 정해진 시간 내에 높이 올라간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남녀 일반부는 속도 경기(클래시 포맷)도 함께 치러진다.

대한산악협회 소속 각 시·도협회 소속 동호인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남녀

일반부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회는 29일 오후 1시부터 남녀 일반부 난이도 예선과 속도 경기 예선 및 결승이 치러지고, 30일 오전 8시부터는 남녀 초·중·고등부 예선 및 결승, 일반부 난이도 결승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최근 중국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대학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콤바인(combine) 부문 1위를 차지한 조승운(조선대 체육학과 3년) 선수를 비롯한 김한울(조선대 체육학과 3년), 김홍일(조선대 체육학과 4년), 박지환(아이티 클라이밍팀), 사솔(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 등 국내 랭킹 5위권에 드는 선수들이 참가해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선보인다.

현재까지 참가를 신청한 선수는 200여명에 이른다.

임승진 회장은 “스포츠클라이밍은 손가락 한마디로 온몸을 지탱하면서 미묘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중들도 손에 땀을 쥐는 관전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전국의 선수들과 산악인들이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